

# 佛心 망향가... 스리랑카 불상 만든다

불교국가인 스리랑카의 이주노동자들이 오는 5월 석가탄신일을 맞아 나주의 한 사찰에서 자신들만의 대형 불상을 모시는 법회를 준비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18일 대한불교 조계종 나주 심향사와 이주노동자 등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에 거주하는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300여명은 오는 5월 21일 석가탄신일을 앞두고 1m 높이의 스리랑카식 좌불석상을 심향사내에 모시기 위해 500만원에 이르는 불상 기금을 모으고 있다. 불상 제작기간이 한달정도 걸리는 것을 감안해 내달 중순까지 모금을 끝낼 계획이다.

이들의 소원은 석가탄신일에 자신들이 제작한 불상을 모셔놓고 자신들만의 법회를 갖는 것이다. 더 나아가 광주·전남지역내 불교권 국가의 이주 노동자 모두가 모이는 대형법회를 여는 희망도 꿈꾸고 있다.

## 스리랑카 이주노동자 300여명 기금 모금 5월 석가탄신일 맞춰 나주 심향사서 법회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나주 심향사에서 갑자기 불상제작에 나선 사연은 이렇다.

지난 2007년 취업비자로 한국에 입국한 구마루(34·광주시 광산구)씨 등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4명은 이듬해 10월 무작정 심향사를 찾았다. 고국에서부터 유명 사찰을 찾아다니며 법회에 참석할 정도로 열성적인 불교신자인 구씨와 친구들은 법회를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심향사 스님들도 이들의 사연을 듣고 반갑게 맞이해 줬다.

광주와 나주 인근 공장에서 근무하는 이들은 이후 매주 일요일이면 심향사에서 그들만의 작은 법회를 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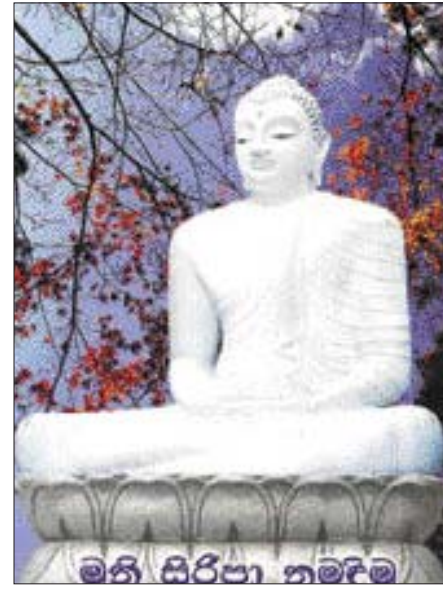
이러한 사실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 사이에 입소문을 타고 전해졌다. 6개월만에 법회 참가자는 100명 이상으로 늘었고, 고국에서 스님을 직접 초청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고국의 스님까지 모셔올 정도로 법회의 규모가 커지자 '스리랑카식 법회'를 통해 고향과 가족에 대한 그리움을 달래고 싶었기 때문이다. 심향사 스님들도 이들의 사연을 듣고 반갑게 맞이해 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향에서 지내던 법회 분위기가 나지 않았다. 부처님은 같은 부처님이었지만 상호가 달라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한국 불상은 얼굴에 콧수염이 그려져 있고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 반면 스리랑카 불상은 콧수염이 없고 아래를 바라보는 게 특징이다.

구씨는 "처음에는 심향사에서 법회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했는데, 시간이 지나보니 자꾸 고향의 불상을 모셔놓고 법회를 열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더라"면서 "심향사에서 이같은 사실을 알고 불상 설치 장소 등을 적극 협조해 주시기로 해 고마울 뿐"이라고 말했다.

구씨 등은 불상을 제작하는 것 외에 심향사에 자신과 같은 스리랑카 출신 이주노동자들이 쉬면서 법회에 참여할 수 있는 쉼터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모금활동도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



스리랑카 이주 노동자들이 제작할 스리랑카식 부처상. 시선이 아래로 향한 것이 특징이다.

심향사 주지 원광스님은 "처음에 이들이 절을 방문했을 때 놀라기도 하고, 반갑기도 했다"면서 "이들이 부처님의 품에서 평온을 찾을 수만 있다면 모든 것을 돕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형호기자 khh@



## 광주 북구 금은방 강도 버린 둔기 발견 "전경 없애도 6~7년간 경찰 특채"

### 대전 사건과 수법 비슷 동일범 소행 추정

### 이길범 해양청장 흑산도 EEZ 해상서 하룻밤

'광주시 북구 금은방 강도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북부경찰은 현장 주변 도로에서 범인이 버리고 간 둔기를 발견, 정밀감식 종이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후 5시에 북구 중흥동 한 아파트 상가 앞 조모(56)씨의 C금은방에서 직선거리로 200m 떨어진 도로에서 길이 50cm의 둔기를 발견했다.

이 둔기는 범인이 조씨의 금은방을 터는 과정에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목격자의 진술과 도주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분석, 범행 현장 주변 지역에 대한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특히 지난 15일 대전시 동구 자양동에서 발생한 김모(64)씨의 금은방 강도사건과 범행 수법이 비슷한 점으로 미뤄, 동일범의 소행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대전동부경찰과 공조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은 또 예상 도주로를 중심으로 경찰력을 배치, 범인의 뒤를 쫓고 있으나 아직까지 결정적인 단서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범인은 지난 18일 오후 5시10분께 북구 중흥동 P상가에서 영업용 택시를 타고 광주역에서 내린 뒤 행방을 감했다.

/이종형 기자 golee@kwangju.co.kr

취임 1년을 맞은 이길범 해양경찰청장이 지난 18일 한국측 배타적 경제수역(EEZ)에서 하룻밤을 보냈다. 높은 파도가 이는 EEZ 해상 합정에서 직원들과 함께한 이 청장의 '1박 2일'은 강력한 해양주권 수호의지를 엿보게 했다. 이 청장은 또 전경 폐지 이후 6~7년간 전경을 경찰로 특채하는 시책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첫 하이브리드 경비함 취역식을 끝낸 18일 오후 펜더 헬기를 타고 신안군 흑산도 EEZ에서 경비작전을 수행 중인 3003함에 도착한 이 청장은 간단한 업무보고를 받고 상황배치 훈련과 불발 조업 중국어선 나포작전

을 지켜봤다.

이 청장은 지난 18일 밤 목포해경 소속 3003함에 타고 배타적 경제수역(EEZ) 치안 상황 점검후 직원들과 간담회에서 "오는 2013년 전경이 완전히 폐지되면 감축인원의 30%를 경찰관으로 채용해 대체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또 "전경은 아주 좋은 자원으로 항상 특채로 별도 모집을 해왔다. 전경이 폐지되더라도 앞으로 6~7년간은 전경 특채 시책을 유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9일 오전 신안군 흑산면 사무실에서 어민들과 간담회를 열고 애로사항 등을 청취했다. /서부취재본부=김병관기자 dss6116@

## 공정택 전서울시교육감 인사비리 혐의 출석조사

서울시교육청 인사비리에 연루된 의혹이 짙은 공정택(76) 전 서울시교육감이 19일 오전 9시20분께 서울 서부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공 전 교육감은 재직 시절인 2008~2009년 시교육청 인사를 총괄하는 측근 간부들을 통해 장학관·교장 승진과 장학사 임용, 부임학교 등과 관련된 청탁을 들어줄 것을 지시하고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구속된 간부 중 일부가 '최고 뒷문' 때문에 비리를 저질렀다고 진술함에 따라 이날 공 전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렀다. 공 전 교육감은 시교육청 비리가 불거진 이후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면서 국내 유명 법무법인인 수사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밀짚 모자를 쓴 법정스님(맨 오른쪽)이 지난 1952년 여름 친구들과 흑산도에 놀러가 모래사장에서 찍은 사진.

## 밀짚 모자 쓴 전남대생 法頂 박광순 전남대 명예교수 출가전 사진 공개

법정스님과 12살 때 만나 60년 우정을 나누었던 박광순(78) 전남대 명예교수는 19일 자신이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던 법정스님 젊은 시절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1955년 11월 25일 스님이 7명의 친구와 사진관에서 찍은 것으로 보이는 흑백사진에서 보는 스님이 당시 전남대 학생복을 입고 입가에 잔잔한 미소를 띠고 있다.

이 사진은 스님이 효봉 스님을 만나 불교에 귀의하기 1달여 전에 찍은 사진으로, 출가 전에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스님은 친구들과 흑산도와 홍도를 여행하고 새벽녘 모래사장

위에서 여행의 추억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했다.

사진에서 스님은 모래사장에 서 밀짚모자를 쓰고 바지를 걷어 올린 채 앉아있는데 발 앞에는 홍도에서 채취한 풍란과 나무 새장이 보인다. 어렸을 적부터 방학이 되면 산과 절을 찾아다녔다는 스님은 해남 대흥사로 나들이를 떠나 대흥사 탐과 경내 삼진교 앞에서 사진을 찍기도 했다.

박 교수는 "어린 시절 동이서 주막이던 목포 축성암 암자에 올라 바다를 바라보던 때가 기억난다"며 "스님이 보냈던 편지들은 훗날 스님의 부락으로 모두 없애버려 남아있는 사진들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진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40년 만에 섬으로 돌아온 삼학도

### 복원사업 10년만에 호안 통수식

### 수로 2천 242m·다리 10개 설치

삼학도가 40년 만에 옛 모습을 드러내면서 19일 삼학도를 찾은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목포시는 이날 대삼학도 교량에서 '삼학도' 복원사업 호안 통수식을 갖고 수로 공사 완공을 자축했다. 지난 2000년 삼학도 복원화 사업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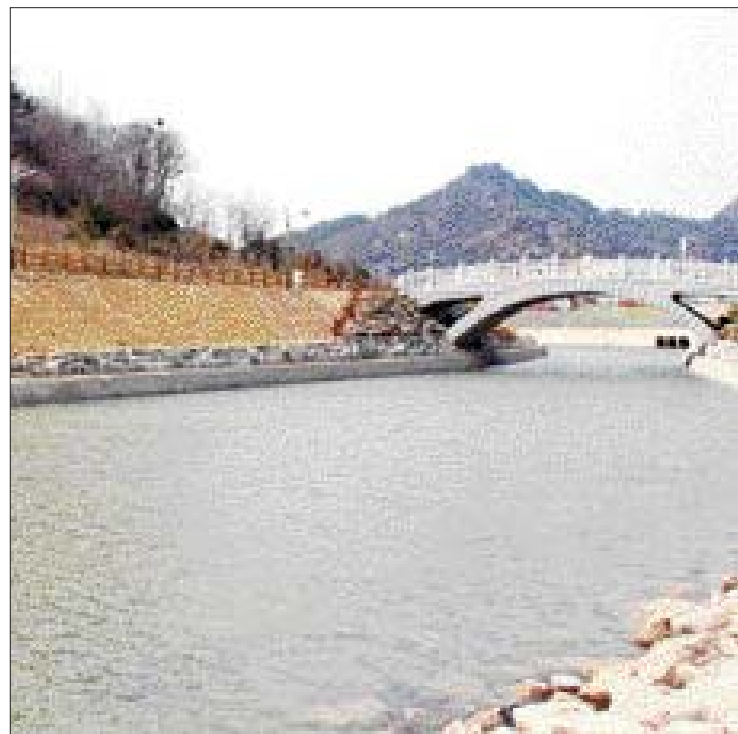
삼학도는 1968~1973년 섬 외곽에 돌을 쌓고 안쪽 바다를 매워 육지로 변했으며, 공장과 주택이 난립하면서 자연환경이 크게 훼손되고 섬으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다.

목포시는 지난 2000년 삼학도 일대 57만여㎡를 공원으로 지정하고 섬 복원과 대대적인 정비에 나섰다. 물로 변한 중·소삼학도 사이에 길이 760m, 너비 20~40m, 깊이 2

m의 수로를 파 분리하는 등 섬 주위에 모두 2천 242m의 수로를 만들었다. 수로 위에는 10개의 다리를 설치해 시민이 섬에 드나들 수 있게 했다.

이날 통수식에 참석한 시민 김양준씨는 "목포 사람들의 희로애락과 함께 시민의 서러움이 엉켜있는 삼학도가 친수 공원으로 시민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이 다행"이라며 기뻐했다.

목포시 관계자는 "삼학도 복원사업의 기틀을 이루는 수로조성 공사가 마무리되면서 1차 사업이 모두 완료됐다"며 "향후 삼학도 유지관리와 석탄부두 등 지장물 이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무분별한 매립 공사로 물로 변했던 '전설의 섬' 삼학도 복원공사로 만들어진 중삼학도 앞 수로에 바닷물이 흐르고 있다. 수로 양쪽으로 목포항과 목포의 상징인 유달산이 한눈에 보인다. /서부취재본부=이상선기자 sslee@

## 기차타고 벚꽃 구경하세요

### 코레일 광주본부 봄꽃 관광열차 운행

### 31일~내달 1일 쌍계사·진해 등 왕복

코레일 광주본부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일간 쌍계사 심리벚꽃·관한루 관광·진해 벚꽃 등 개화 시기에 따라 봄꽃 명소로 떠나는 '관광열차'를 운행한다.

이번 관광열차로는 '경북 하동 쌍계사 심리벚꽃길', '경남 진해 벚꽃길' 기차여행 등 다양하다. 경북 하동 쌍계사 심리벚꽃길의 경우 쌍계사와 화계장터, 관한루를 둘러볼 수 있다. 하루 코스는 이 관광열차는 31일 광

주역에서 오전 8시 출발, 밤 9시10분 도착할 예정이다. 성인 기준 3만4천 900원이다.

다음달 1일 출발 예정인 경남 진해 벚꽃 관광열차는 광주역에서 오전 7시 출발해 해군사관학교와 해군기지 사령부, 여자전, 제왕산 공원 등 네 코스로 나눠 자유여행을 한 뒤 밤 10시30분께 광주역에 도착한다. 3만7천원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청소년 인권 영화 '시선 1318' 상영

### 광주인권위 내달 9일

이 영화는 지난 2003년 '여섯 개의 시선'을 시작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작해온 유니버스 인권영화 시리즈 중 네 번째 극영화 프로젝트로, 5편의 단편영화로 구성돼 있다.

관람 희망자는 4월 2일까지 e-메일 (ingwonfilm@hanmail.net)을 통해 이름과 소속을 적어 접수하면 된다. 문의 062-529-7576. /최경호기자 choice@kwangju.co.kr

## 이병헌 고소 강병규 개입 드러나

○송승선 강병규(37)씨가 검수 수사 결과 배후이 병헌(39)씨와 이씨의 옛 여자친구 간의 고소·고발사건에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 '논쟁'.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정성환)는 19일 이씨에게 "전 여자친구 권모(22)씨와의 관계를 폭로하겠다"며 고품을 요구하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동공갈 등)로 강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

○검찰은 또 "이씨의 결혼 유혹으로 성관계를 가져 정신적·육체적 피해를 봤다"며 이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뒤 자신의 어머니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한 권씨 등 2명을 기소중지처분. /연합뉴스

**오늘 날씨** 해돋이 06시 37분 해질 18시 44분 달돋이 08시 31분 달짐 23시 13분

**나들이 조심** 저기압의 영향으로 낮 한때 비가 온 뒤 개겠다.

광주	흐리고안개비	14/16℃
목포	흐리고안개비	13/15℃
여수	흐리고안개비	12/15℃
완도	흐리고안개비	13/16℃
구례	흐리고안개비	10/16℃
해남	흐리고안개비	13/15℃
장흥	흐리고안개비	12/15℃
고흥	흐리고안개비	12/16℃
순천	흐리고안개비	10/14℃
영광	흐리고안개비	13/15℃
진도	흐리고안개비	13/16℃
전주	흐리고안개비	13/16℃
남원	흐리고안개비	10/14℃
흑산도	흐리고가끔비	12/14℃

◇주간날씨 기상안전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씨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26(금)
날씨	☀	☁	☁	☀	☀	☀
최저/최고	2/9	2/10	6/11	4/11	2/11	0/10